

연예뉴스 HOT 3

영화 '서복' 4월 극장·티빙서 동시 공개



'서복' 박보검

공유·박보검 주연 영화 '서복' 4월 극장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동시 공개된다. 투자 배급사 CJ ENM 영화 사업본부는 “영화 '서복'을 4월15일 OTT 플랫폼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하며 극장에서도 개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과 니즈가 급변하는 상황에 '서복'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기 위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서복'은 인류 최초 복제인간에 얽힌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민희, 홍상수 감독 영화 제작 스태프 참여



김민희

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제작 스태프로도 이름을 올렸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신작 '인트로덕션'에 주연은 물론 '프로덕션 매니저'(현장 제작팀장)로 참여했다. 제작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스태프이다. '인트로덕션'을 경쟁 부문에 초청한 제7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3일 영화 상영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인트로덕션'은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연인을 각각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다. 이번 베를린 국제영화제 수상을 노리고 있다.

'미나리' 윤여정, 여우조연상 27관왕



한예리



윤여정

영화 '미나리'의 두 여배우가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한예리는 미국 아카데미상의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 윤여정은 피닉스 비평가협회가 주는 여우조연상으로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일 미국 영화전문지 배리어터는 한예리를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로 선정했다. 한예리는 영화에서 희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엄마 역을 맡아 열연했다. 윤여정도 이날 미국 피닉스 비평가협회의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모두 27관왕을 달성했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다시 한 번 일본시장 공략 나선 현빈

영화 '교섭' 日 선판매...빈사마 파워!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인기 영화 제작사 “명성에 걸맞는 금액 판매” 새로운 스크린 한류 접화 기대감



드라마 tvN '사랑의 불시착'으로 일본에서 화제를 모은 배우 현빈이 인기를 발판삼아 올해 개봉하는 '교섭'을 현지에 내놓는다. 사진제공 | NEW

톱스타 현빈이 다시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

지난해 주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일본 한류를 재점화한 현빈이 이번에는 새 영화로 현지 관객을 만난다. 자신의 이름값을 여실히 입증하며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해외무대를 겨냥하는 한국영화의 새로운 힘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현빈이 황정민과 함께 주연한 영화 '교섭'이 최근 일본에 선판매됐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권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배급 판권 선판매의 일환이다. 하지만 현빈에게 일본은 각별한 의미를 안긴다. 지난해 2월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에서 공개한 주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연간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모았기 때문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은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비롯해 상위권에 꾸준히 머물렀다.

'교섭'의 일본 선판매는 이 같은 힘에 기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교섭'의 제작사인 영화사 수박의 신범수 대표는 3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워낙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면서 “이번 배급 판권 선판매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정확한 판매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배우의 명성과 영화의 규모에 걸맞은 금액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일본 역시 극장 관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한

국영화가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지난해 '가생충'을 제외하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영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터여서 영화계는 한류스타 현빈을 앞세운 '교섭'을 시작으로 새로운 스크린 한류가 접화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현빈의 무게감이 한한령 규제 속에서 중국 측의 관심이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수 대표는 “영화와 현빈에 대한 중국 바이어들의 호감 어린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랑의 불시착'이 현지에서 정식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드라마에 대한 아시아권 등 관심이 현저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섭'은 임순례 감독이 현빈·황정민과 손잡은 작품. 중동지역에서 납치된 한국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를 그렸다. 현재 후반 작업 중으로, 올해 개봉할 예정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브레이브걸스 역주행...4년 만에 빛보는 '롤린'

유튜브 위문공연 영상 뒤늦게 화제 지니·빅스 등 실시간 음원차트 1위



브레이브걸스

‘제2의 EXID 되냐?’
결그룹 브레이브걸스가 데뷔 10년 만에 제대로 뒀다. ‘히트곡 제조기’로 불리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용감한형제가 2011년 론칭한 브레이브걸스가 4년 전 발표한 ‘롤린’(Rollin’)으로 ‘역주행 신화’의 주인공이 됐다. 2015년 그룹 EXID가 전년도 노래 ‘위아래’로 음원차트에서 다시 치솟아 오르며 스타덤에 오른 궤적과도 닮았다.

3일 현재 ‘롤린’이 각종 온라인 음원차트와 유튜브에서 순위 급상승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의 일간 차트 ‘24Hits’에서 8위를 기록했고, 지니와 빅스의 실시간·일간 차트에서도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롤린’은 브레이브걸스가 2017년 3월 발표한 네 번째 미니음반 타이틀곡으로, 트로피컬 하우스를 접목한 EDM(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경쾌하고 청량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발표 당시 용감한형제 사단의 작품답게 ‘중독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룹 인지도가 낮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

다. 그룹 자체적으로도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잦은 멤버 교체와 긴 공백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과거 군부대 위문공연 등에서 활기차게 무대를 선보인 영상이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역주행의 궤장을 맞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브레이브걸스의 안무와 보컬에 맞춰 터지는 군인들의 우렁찬 함성이 인상적이다. ‘롤린’을 바탕으로 재치 있는 댓글을 모아 편집한 영상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유튜브에 직접 감사의 댓글을 달았다. 2017년 세시콘셉트의 앨범 재킷 이미지를 “교체해 달라”라는 팬들의 요청에 청량한 모습으로 바꾸기도 했다. 덕분에 브레이브걸스는 각종 음악방송 순위프로그램 등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특허받은 항공갈창과 발명특허 에어쿠션인솔로 족저근막염 방지와 관절보호기능

스마트 건강슈즈

최상의 쿠션감(발명특허 에어쿠션), 우수한 통풍성(오솔라이트 특허갈창)
걸을때 마다 느껴지는 충격을 완벽히 흡수해 관절을 똑똑하게 보호해 주는 기능성 건강슈즈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스마트 건강 슈즈는 에어쿠션에 오솔라이트 갈창은 점막하여 악취와 땀이 차는 것을 막아준다. 특허받은 에어 쿠션 인솔은 발바닥의 발꿈치와 발볼 사이의 아치에 에어쿠션이 작용되도록 하며, 무릎, 발목 관절, 족저근막염 등 척추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 충격 흡수 공법으로 설계되어 항상 쾌적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신발내의 공기를 순환시켜 악취와 땀이 차는 것을 막아주어 통풍성을 원활하게 해주고 통기성과 땀의 흡수 및 발수기능이 뛰어나 피로한 발, 불편한 발에 낱개를 단듯 안정적이고 편안한 보행으로 착화감이 우수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점막시켜 높은 접지력과 안전성을 자랑한다. 장시간에 걸친 신발의 착용에도 피로를 방지하여 주며 오직 발 건강만을 위해 탄생한 스마트 기능성 건강신발은 100% 천연소가죽을 사용하여 질기고 견고하며 장시간 걷는것은 물론 골프

및 직장인들의 일상화로도 인기가 높으며 신고 벗기 편한 고급 원터치 버튼을 내장하였으며 일반적인 발구조와 함께 평면족(pesplanus)과 요족(pes cavus)과 같이 발의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다양한 경우에도 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평발로 보행이 불편하신 분
관절이 불편해 보행이 불편하신 분
기존 신발이 불편하신 분
패션감각이 있는 신발이 필요하신 분

■ 천연소가죽 외피 - 부드럽게 발을 감싸준다. 내구성 강화
■ 투명 섹고무창 - 마모에 강하고 접지력 향상
■ 특허받은 에어쿠션인솔 - 최상의 쿠션감 피로도 감소
■ 원터치 버튼 - 신고 벗기 편하다.
■ 글로벌 디자인 - 연령대와 복장에 구애받지 않는 범용성



에어쿠션인솔-관절보호기능, 고감도 쿠션감,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특허갈창), 강력한 미끄럼방지 섹고무창,
2021 '비버리힐즈 폴로클럽' 신제품!



에어쿠션 특허 제 10-1379440 호

제품 하자시 6개월 무상 A/S 보장

— 기존가 : 198,000원 —

출시기념 / 파격가 : 89,8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남)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 280 / 285mm
사이즈 (여) 230 / 235 / 240 / 245 / 250 / 255mm

모델명(남) : PD-1 (블랙)



모델명(여) : PD-5 (와인)



모델명(여) : PD-3 (블랙)



MADE IN KOREA



특허 오솔라이트 갈창

모델명(남) : PD-2 (브라운)

